

치 사

햇볕이 뜨거울수록 신록은 더욱 짙어지고 원력을 실천하겠다는 정진의 치열함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결실을 더욱 여물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인스님들이 염불을 통해 부처님의 모습을 내 몸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간직하겠다는 뜨거운 열기는, 저마다의 신심을 굳건하게 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종단의 내실을 더욱 알차게 다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행하기 어려운 길(難行道)도 있고 행하기 쉬운 길(易行道)도 있다고 하여, 의도하지 않게 그 진중함의 차이를 두려는 흐름도 있지만 수행자의 본분을 놓고 볼 때 수행의 쉽고 어렵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염불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부처님처럼 바뀌어 가는 수행인데도 여태껏 우리들은 이를 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홀함을 보완하고 의례를 활성화 하고자 종단은 의례의 한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승가대학 등 기본교육과정에서는 2013년부터 불교상용의례를 필수 교과목으로 정하여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종단이 처음으로 제1회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를 여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연대회는 사실상 염불의 일상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법석(法席)과 다름이 없습니다. 《증일아함》 〈억념품〉에 '염불은 거닐 때도 머물 때도 닦아야 하며,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사업을 할 때도, 자식들에 의해 산란한 집에 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염불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대회를 계기로 여기 참석하신 사부대중 모든 분들이 일상에서 염불을 생활화하여 몸과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옹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다한 곳에 이르러 모두가 자금색 광명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학인염불 시연대회를 진력으로 마련하신 교육원장 현웅스님과 여러 교수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인스님과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의 공덕이 널리 사회로 퍼져 평안한 정토사회의 원동력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